

커버스토리

대대적인 연안 스티로폴 폐부자 수거 캠페인 벌여

- 전남 완도, 경남 고성 연안에서 2차에 걸쳐 실시
- '바다 살리기' 환경운동실천,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평



분의 스티로폴 폐부자를 회수·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처리에 고심하던 완도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다.

또한 지난 5월 31일에는 경남 고성군 삼산면 해안지역에서 지역 주민 및 협회, 회원사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가하여 3.5ton 트럭 10대분의 스티로폴 폐부자를 소각처리 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바다환경 개선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.

특히 이날 캠페인은 제 1회 바다의 날에 실시 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행사였으며 바다의 중요성과 바다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.

두지역의 캠페인 기간 동안 협회는 소각로 제작업체의 지원을 받아 해안에 소각로 3대를 직접 운영하면서 완도 및 고성지역 인근의 스티로폴 폐부자는 물론 페타이어, 각종 쓰레기 등도 차량을 이용해 수거 현장에서 직접 소각 처리함으로써 바다 및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했다.

한편 협회는 폐부자 수거 캠페인이 1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페어구, 폐부자를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당 50kg을 처리할 수 있는 스티로폴 폐부자 소각로 1대씩을 각각 기증했다.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연안지역의 바다환경이 개선되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자랑스럽게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이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했다.

“

협회는 제 1회 바다의 날을 맞아 2차에 걸친 대대적인 연안지역 폐부자 수거 캠페인을 실시, 바다청결 운동에 적극 나섰다.

”

'바다를 살리자'

각종 생활쓰레기와 페어구들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환경운동이 전개됐다.

협회는 제 1회 바다의 날을 맞아 '지구를 깨끗이, 바다를 깨끗이'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5월 18일, 31일 2차에 걸쳐 전남 완도군 및 경남 고성군과 공동으로 연안지역에 버려져 있는 스티로폴 폐부자 회수·처리 캠페인을 실시하여 바다청결 운동에 발벗고 나서므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.

지난 5월 18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해안지역에서 실시된 스티로폴 폐부자 처리 캠페인에서는 지역 주민 및 군부대, 협회, 회원사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가하여 3.5ton 트럭 12대